

미원주민 선교주일

설교자료



HOLY
BIBLE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선교주일

설교자료

HOLY
BIBLE

넓게 열린 손

개 교회는 어느 주일이든 미원주민선교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 올해 4월 18일에 특별 헌금과 함께 이날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설교 자료는 4월 18일 주간의 성서 일과표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36b-48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본 자료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ourceUMC.org/NAMS 에서 함께 제공된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받은 구원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주일 당일, 즉 여전히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그 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일 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는 순간 저는 손을 구부려 주먹을 꼭 쥐니다. 아마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주먹을 꼭 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을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꼭 쥐 손에 그들의 작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원주민 선교주일

설교자료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꼭 쥘 손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주
님은 홀연히 그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하고 말
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두렵고 외로운 세상 속으로
침투해 오신 목소리요 임재이십니다. 그리
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팔을 내밀어 그분의 열린, 못 자국 난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은 즉시 안심합니다. 또 기뻐합니
다.

생선구이 한 끼를 함께 나눈 뒤, 주
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
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45절).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
릴 때 그들의 손도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
다. 두려움, 분노, 가진 것이 모자란다는 생
각을 내려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
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선
포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도구들
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
늘날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열
린 손으로 이웃과 가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의 사역과 미원주민 공동체를 위해 벌이는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위해 나누고 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평안을 전하고 치
유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의 열린 손

“오늘 미원주민선교주일에 그 교회에 더 큰 힘을 실어
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은 우리의 열린 손을 뻗어 미원주민 공동체들에 전하
는 평화, 정의,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미원주민선교주일에 그 교회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열린 손을 뻗
어 미원주민 공동체들에 전하는 평화, 정의,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의 절반은 우리가 속한 연회와 지역의 사역



미원주민 선교주일

설교자료

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지원합니다. 열린 손으로 일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어디에서 보입니까?

- 예수님의 부활은 _____에서 분명히 보입니다(소속 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미원주민 선교헌금이 지역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서오하이오 연회의 보조금은 미원주민 공동체들이 코비드-19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계와 친밀한 관계성을 실천하는 친환경 공동체를 통해 마스크케(Maskoke) 언어를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교회 협의회(WCC)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토착민 영성과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사업을 준비하는 일에 분명히 보입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목회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

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미원주민 연합감리교회 인들과 그들에게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장학금에 분명히 보입니다.

부활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열린 손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또 부서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인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를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미원주민선교주일에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소망과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엽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